

“따뜻한 나눔 실천하는 첼리스트 될 겁니다”



〈13〉 서울대 음대 첼로 전공 장신행 씨

전남도민들 지원으로 걱정없이 공부 감사
롤모델은 장한나...콩쿠르 우승·유학 계획

“전남을 대표하는 인재에 선정돼 영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할 일의 방향과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향의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라고 자신을 칭한 전남스타 200인 중 한 명인 장신행(여·21)씨는 서울대에서 첼로를 전공하는 유일한 전남 출신이다. 고등학교까지 두각을 나타내며 당당히 최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경쟁한 선·후배, 동료들과 경쟁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극이 되고 있다.

“중앙콩쿠르에서 낙방했어요. 내년에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첼로가 너무 재미있어요. 곡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느끼는 희열도 크고요. 이 길을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며, 질문에 크게 웃으며 답하는 그녀는 긍정의 힘을 믿고 있다. 언젠가 이 경쟁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도 굳세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전남도민들의 지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 비싼 레슨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약보도 원없이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씨는 자신의 롤모델로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를 꼽았다. 아직 장한나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겸손해했다. 다만 드보르작 작품만큼은 경쟁자들과 겨뤄보고 싶은 정도로 자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첼로를 배웠습니다. 그 뒤로 대학 입시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고 방과후에 연



습실에서 5~6시간 연습했습니다. 심지어 명절에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각오와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파인 그녀는 대학 졸업 때까지 국내 콩쿠르 우승과 함께 유학길에 오를 계획이다. 자신의 수준을 세계 무대에서 시험하고, 다시 다듬는 과정을 계속하겠다는 의

지를 보였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학교의 시설을 공부에 이용하는 편인데 요즘 코로나 19 사태로 연습이나 모든 활동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비용이 좀 듭니다. 지역사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조금 더 안정되고 계획대로 목표를 추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스타 200인 선정과 함께 고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이 장씨의 설명이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부모님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자신의 성공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도 밝혔다.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첼리스트, 인간적인 첼리스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를 환원하겠다는 각오로 연습하고 공부할 것입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로마라이프’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대상

국민공감대상 브랜드대상 3년 연속 수상도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사진)가 최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대상을 받았다.

또 동아일보 국민공감대상 브랜드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아로마라이프는 500여명 사업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그 중 많은 구성원이 실버 연령대에 속하는 등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가진 점을 인정받았다.

아로마라이프 창업자 이학재 회장은 “아로마라이프는 대표 상품 ‘아모르’를 포함해 80여종의 제품과 3000여가지의 품목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 지난 2008년 창업인 기능성보정 속옷회사 아로마라이프는 대표 상품 ‘아모르’를 포함해 80여종의 제품과 3000여가지의 품목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 지난 2008년 창업인 기능성보정 속옷회사 아로마라이프는 대표 상품 ‘아모르’를 포함해 80여종의 제품과 3000여가지의 품목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하는 광주주시 북구에 성금 1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다. 지난 2008년 창업인 기능성보정 속옷회사 아로마라이프는 대표 상품 ‘아모르’를 포함해 80여종의 제품과 3000여가지의 품목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 지난 2008년 창업인 기능성보정 속옷회사 아로마라이프는 대표 상품 ‘아모르’를 포함해 80여종의 제품과 3000여가지의 품목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 지난 2008년 창업인 기능성보정 속옷회사 아로마라이프는 대표 상품 ‘아모르’를 포함해 80여종의 제품과 3000여가지의 품목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구례우체국, 수해복구 지원활동·구호물품 전달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조해근) 구례우체국(국장 문영미·노조지부장 최나춘)이 최근 집중호우 수해민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했다. 구례우체국 직원들은 구례읍 5일시장을 방문해 주택·상가로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고 쓰레기 등을 정리했다. 구례군청을 방문해 구호물품(휴대용 가스렌지 165개·300만원 상당)도 전달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해양대-장애인복지관, 장애대학생 지원 업무협약



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와 목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최용희 관장)이 최근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재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식개선 교육·강사 지원 ▲장애관련 체험 행사 지원 협조 ▲장애시설 자원에 관한 상호교류 및 장애시설 컨설팅 자문 협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 다짐대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최근 코로나19에 대응해 과학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혁신성장 의지를 다지기 위한 ‘국립광주과학관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국립광주과학관 김선아 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고객 중심의 경영환경 구축과 기관의 혁신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45 다큐멘터리 3일	30 930 MBC 뉴스 55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이슈 픽 썸과 함께 스페셜 55 UHD 스텐터 412회	00 인간극장 스페셜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15 생활속 연속복권 720+ 20 반박이는 프리채널 50 보보보 친구연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1~2부(재)
1	00 TV쇼 진품명품(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 뿌리깊은 나무(재) 50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테데루 테디베어 마을의 비밀 45 보토스 패밀리(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3	00 마법소년 디디 30 열린채널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본 좋은 날(재)	00 특목 보철세계(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202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목포	00 도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주간연예수첩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M드라마 이츠 라이브 40 내가 가장 예뻐할 때(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맛남의 광장(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전국 TOP 10 가요쇼(재)
8	30 기막힌 유산	30 영화가 좋다(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특선다큐 일곱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	30 내가 가장 예뻐할 때	
10	00 다크 인사이트 <눈물, 바다> 50 더 라이브	35 살림하는 남자들(재)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12	1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통합뉴스룸 ET	20 시네마티드라마 SF8 만신(재)	40 나이트라인

EBS1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15 로보카 폴리	12:25 지식채널e	19:00 오즈 : 마법을 찾아서
07:30 뽀로로와 노래해요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최고! 호기심딱지	13:00 명이	19:45 다크 잇
08:00 똥똥똥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35 경이로운 지구
08:3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2	14:45 미니특공대X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구석구석 알프스-노래가 된 풍경>
08:45 워터지 뮤직박스	15:45 꼬마 히어로 슈퍼잭	21:30 한국기행 <여름별미를 찾아서-행복이 주렁주렁>
09:00 레인보우 루비	16:00 방귀대장 뽕뽕이	21:50 파란만장 <죽을 만큼 힘들어도, 다시 살아내자!>
09:15 로보카 폴리 송송유치원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09:30 몰랑	16:30 똥똥 유치원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6:50 해와 해오	23:5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0:20 지식채널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도전! 나도 과학자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00 EBS 정오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7일(음 7월 9일) ☎ 010-9790-8237

<p>36년생 김요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48년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60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72년생 사전에 대처해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 84년생 분명한 성과가 도출 되겠다. 96년생 뻔하다 알고 있으면서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1, 78</p>	<p>42년생 확신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54년생 방심하지 않았는지 돌아켜 볼 일이다. 66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접하는 기쁨이 있다. 78년생 축적 해 왔던 바가 자신을 지탱해주는 보루가 될 것이니라. 90년생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하지 마라. 02년생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었다. 행운의 숫자 : 16, 95</p>
<p>37년생 유지하고 있을 때 좌절적이다. 49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61년생 거시적 관점의 실행이 절실하다. 73년생 과분하게 언행하는 것은 오는 복을 발로 치내는 것과 같다. 85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97년생 성심으로써 대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5, 86</p>	<p>31년생 장래의 길흉을 좌우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도다. 43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공든 탑이 무너진다. 55년생 주저 하지 말고 확실하게 불잡아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67년생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다. 79년생 방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91년생 다른 것과 비교될 정도이므로 쉽게 식별할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7, 60</p>
<p>38년생 참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다. 50년생 계획대로 추진하면 알찬 결과를 보인다. 62년생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74년생 높은 계도로 오르면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게 된다. 86년생 평소 생각해오지 않았던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니 잘 살펴라. 98년생 방법을 달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행운의 숫자 : 50, 92</p>	<p>32년생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 두어야겠다. 44년생 성심으로 써 노력 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56년생 애초에 마음먹었던 대로 행한다면 허자가 없을 것이다. 68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않은 일이지만 얻는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라. 80년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요령이 깊어오도다. 92년생 가정이 실상이 된다. 행운의 숫자 : 44, 87</p>
<p>39년생 원인 불명의 돌발적인 일이 터질 수도 있느니라. 51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명예나 영달이 따를 수도 있는 행운의 날이다. 75년생 막힌 것은 말설이지 말고 풀려라. 87년생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99년생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53</p>	<p>33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량이 불과하니 크게 기대하지는 마라. 45년생 세 번 생각하고 말한다면 실수하지 않으리라. 57년생 시기의 선택을 잘 해야만 형국을 유지 한다. 69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방법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 93년생 철저히 하면서도 투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94</p>
<p>40년생 거슬러오르며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옳다. 52년생 신경 써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니라. 64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다. 76년생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8년생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발전된 양상으로 이끈다. 00년생 원래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재충전하라. 행운의 숫자 : 14, 55</p>	<p>34년생 작가를 일으킬 수도 있다. 46년생 구슬수를 조심하자. 58년생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겠다. 70년생 평도가 갑자기 변해버릴 수도 있다. 82년생 한 번 시작되면 술술 풀려 나올 것이니라. 94년생 행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00, 81</p>
<p>41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53년생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65년생 제3의 요소가 개입되면서 복잡해지기만 한다. 77년생 개별적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89년생 주저하지 마라. 01년생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6, 69</p>	<p>35년생 응응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47년생 취지는 옳으나 실행의 방안에 문제가 있다. 59년생 초심을 회복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보일 것이다. 71년생 일관된 소신이 있다면 목적 달성을 하리라. 83년생 되돌아 갈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 95년생 서로 마음을 인정하되 화목함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4, 97</p>